

관세청, '25년 상반기 마약밀수 총 617건, 2,680kg 적발

- 전년동기대비 적발 건수 70%, 중량 800% 증가 ... 중량 기준 역대 최대
- 미국·캐나다 국경강화 조치의 풍선효과 등으로 중남미·북미·유럽발 밀수 증가
- 필로폰 밀수 적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카인·케타민 밀수 적발 증가,
마약성분 함유 의약품 적발 증가 ... 해외여행·직구 시 성분 확인 등 주의 필요
- 엑스레이(X-ray) 동시구현시스템 등 검사인프라 확충,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선별·검사, 주요 마약출발국과 국제합동단속 등 국내외 공조 강화로 적발 실적 상승

1 25년 상반기 마약밀수 적발현황

□ 관세청은 '25년 상반기 국경단계에서 총 617건, 2,680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8,933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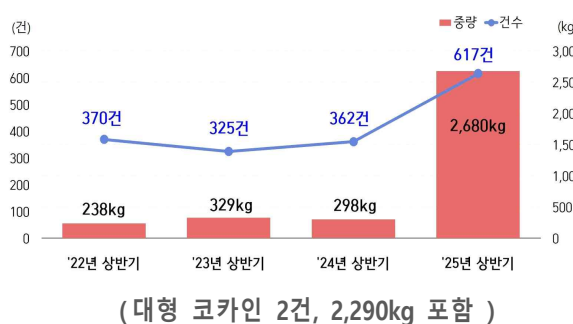
* 필로폰 1회 투약량 0.03g 적용

○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70% 증가, 중량은 800% 증가했으며, 중량 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발량이다.

* ('22.상) 370건, 238kg → ('23.상) 325건, 330kg → ('24.상) 362건, 298kg → ('25.상) 617건, 2,680kg

○ 올해 상반기 적발된 대형 코카인 2건, 2,290kg(4월 강릉 옥계항 1,690kg, 5월 부산신항 600kg)을 특이치로 제외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적발 중량은 390kg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31% 증가했다.

【연도별 상반기 마약단속 건수 및 중량】



- ① 출발지역별로는 중남미 지역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대규모 마약이 연이어 적발됐고, 동남아 지역발 마약밀수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미·유럽 지역발 마약밀수 적발이 증가했으며,
- ② 적발품목별로는 필로폰 밀수 적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카인·케타민·마약류 성분 함유 의약품 밀수 적발이 증가했다.
- ③ 밀수경로별로는 여행자·특송화물 경로의 적발 건수와 중량은 모두 증가했고, 국제우편 경로의 적발 건수와 중량은 모두 감소했다.

【주요 특징 ①】 중남미발 대규모 밀수 및 북미·유럽발 밀수 적발 증가

- (중남미) 미국·캐나다의 고강도 국경강화 조치에 따른 풍선효과로서, 중남미 마약조직이 아시아 등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북미) 캐나다발 필로폰 적발, 미국발 대마 적발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됨
- (유럽) 국내 밀반입 마약의 최대 출발 지역인 동남아발 여행자·화물에 대한 단속강화에 따라, 유럽 지역을 새로운 공급처로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 적발된 마약의 주요 출발지역은 중량 기준으로 ▲ 중남미, ▲ 아시아, ▲ 북미, ▲ 유럽 등 순이다.

【마약 출발지역별 단속 현황】

(단위: 건, kg)

구 분	'24. 상반기		'25. 상반기		전년대비(%)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중남미	4	29	9	2,298	125	7,824
아시아	191	153	324	168	70	10
북미	89	64	216	110	143	72
유럽	72	33	68	96	△6	191
아프리카	4	8	3	7	△25	△13
기타	7	11	8	1	14	△91
합계*	367	298	628	2,680	71	800

【마약 출발국별 단속 현황】

(단위: 건, kg)

구 분	'24. 상반기		'25. 상반기		전년대비(%)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페루	0	0	2	1,690	순증	순증
에콰도르	0	0	1	600	순증	순증
태국	62	76	65	82	5	8
미국	81	60	201	81	148	36
프랑스	12	1.4	8	57	△33	3,929
기타	212	161	351	170	66	6
합계*	367	298	627	2,680	71	800

* 1사건에 출발국이 2개 이상인 사건이 있어 총괄 현황 적발건수와 일부 상이

- **중남미**는 그간 선박 등을 이용한 **단발성** 대형 마약밀수가 적발됐던 지역으로, 올해 4월 강릉 옥계항에서 **페루발 코카인 1,690kg**(약 5,633만명 동시투약 가능)과 5월 부산신항에서 **에콰도르발 코카인 600kg**(약 2,000만명 동시투약 가능)이 **연속으로 적발된** 영향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7,824%(79배) 증가했다**.
 - 중남미발 마약밀수의 증가는 올해 초 **미국·캐나다**의 **고강도 국경강화 조치**에 따른 **풍선효과**로서, 중남미 마약카르텔이 아시아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는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마약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마약 출발지역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0% 증가했다**.
 - 아시아 **주요 출발국**은 전세계 최대 불법마약 생산지역 중 하나인 **골든 트라이앵글** 인근에 위치한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다.
- **북미**는 동남아 지역과 함께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불법 마약류의 대표적인 출발지역으로, **캐나다발 필로폰 밀수, 미국발 대마 적발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72% 증가했다**.
- **유럽** 지역은 지난해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아니었으나, **프랑스발 케타민 밀수, 영국발 필로폰 밀수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91% 증가했다**.

【주요 특징 ②】 코카인 · 케타민 · 마약성분 의약품 밀수 적발 증가

- (**코카인**)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반에** 나타나는 동향으로,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World Drug Report 2025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이 코카인의 종착지 또는 중간 이동경로로 이용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케타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유럽은 불법 케타민의 주요 출발지역 중 하나이며, 케타민은 **아시아에서** 남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 중 하나로 국내에서는 '22년부터 밀수 적발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분석됨
- (**마약성분 의약품**) 내국인이 구매하여 반입하거나,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자국에서 복용 하던 의약품을 성분에 대한 확인없이 반입하는 것으로 분석됨

- 적발된 마약의 주요 품목은 중량 기준으로 ▲ 코카인, ▲ 필로폰, ▲ 케타민, ▲ 대마 등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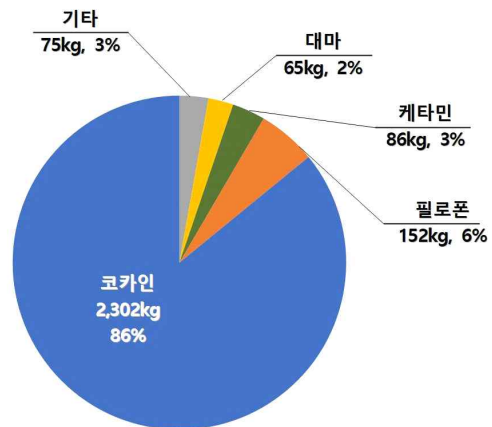
【마약 종류별 단속 현황】

(단위: 건, kg)

구 분	'24. 상반기		'25. 상반기		전년대비(%)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코카인	4	29	7	2,302	75	7,941
필로폰	75	154	68	152	△9	△1
케타민	32	10	33	86	3	747
대마	100	30	163	65	63	116
기타	219	75	454	75	107	0
합계*	430	298	725	2,680	69	800

* 1사건에 적발품목이 2개 이상인 사건이 있어
총괄 현황 적발건수와 일부 상이

【마약 종류별 단속 비중】



- 코카인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적발 중량이 7,941%(80배) 증가했는데, 이러한 코카인 밀수 증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근 아시아 지역 전반에 나타나는 동향으로 확인된다.
-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World Drug Report 2025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이 코카인의 종착지 또는 중간 이동경로로 이용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 필로폰은 지난해까지 매년 가장 많이 적발되는 품목으로,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적발 중량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코카인 다음으로 많은 양이 적발됐다.

* 필로폰 적발 : ('21.상) 43kg → ('22.상) 87kg → ('23.상) 140kg → ('24.상) 154kg → ('25.상) 152kg

- 케타민은 아시아 지역에서 남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경우 '22년부터 적발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747%(8배) 증가했다.
- 마약류 성분 함유 의약품 적발의 증가는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부터 통관 검사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올해 상반기 적발 건수는 30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80건에 비해 281% 증가했다.

* 마약성분 의약품 적발 : ('24.상) 80건 → ('25.상) 305건

【주요 특징 ③】 여행자·특송화물 경로 밀수 적발 증가, 국제우편 경로 감소

- (여행자·특송) 적발 건수의 증가는 자가소비 목적의 마약 밀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적발 중량의 증가는 유통목적 마약밀수가 대형화된 영향으로 분석됨
- (국제우편) 국제우편으로 반입되었던 마약류의 반입경로가 특송화물 등으로 이동한 영향으로 분석됨

□ 적발된 마약의 주요 밀수경로는 건수 기준으로 ▲ 여행자, ▲ 특송화물, ▲ 국제우편 등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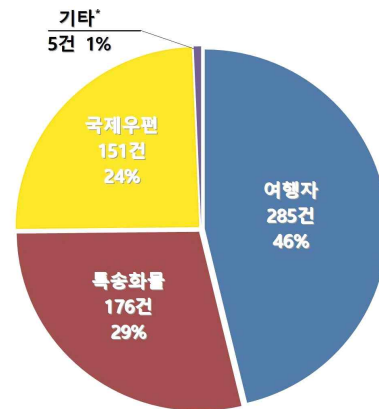
【밀수 경로별 단속 현황】

(단위: 건, kg)

구 분	'24. 상반기		'25. 상반기		전년대비(%)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여행자	82	56	285	142	248	156
특송화물	86	114	176	164	105	44
국제우편	191	100	151	73	△21	△27
기타*	3	28	5	2,301	67	7,996
합계	362	298	617	2,680	70	800

* 선원, 수출입 화물, 선박 내외부, 반입경로 불상 등

【밀수경로별 단속 비중(건수기준)】



- 여행자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적발 건수는 248% 증가, 중량은 156% 증가하였으며, 특송화물의 경우 적발 건수는 105% 증가, 중량은 44%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통 목적 마약밀수의 대형화와 함께 자가소비 목적의 마약밀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 국제우편의 경우 마약류의 반입경로가 특송화물 등으로 이동함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적발 건수는 21%, 중량은 27% 감소했다.

4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 활동

□ 관세청은 국제협력 확대, 대응체계 정비, 현장 단속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마약밀수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 첫째, 동남아·북미·유럽 지역의 주요 마약출발국 관세당국 및 수사기관과 마약정보교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마약출발국과 국내에서 동시에 마약 밀반출과 밀반입을 차단하는 국제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우리나라로 밀반입 하려는 마약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 올해 상반기에는 주요 마약출발국 중 하나인 태국과 3개월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대마초 21kg, 야바 47.8kg 등 마약류 총 72.7kg(약 242만명 동시 투약 가능)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한 바 있다.
 - 또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및 마약단속청(DEA)과 긴밀한 정보채널을 구축한 결과, 해당 기관으로부터 대형 마약밀수 정보를 입수하여 올해 4월 강릉 옥계항에서 페루발 코카인 1,690kg, 5월 부산 신항에서 에콰도르발 코카인 600kg을 적발하여 중남미발 마약밀수를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 둘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마약류 적발 품목 및 은닉수법 등 밀수동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하여 단속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 올해 3월에는 지방공항 우회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세관에서 마약 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마약 우범정보 실시간 공유, 우범국발 여행자 일제검사 확대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지방공항만 세관의 마약단속을 강화한 결과, 4월에 제주세관에서 캄보디아발 필로폰 약 4kg(약 13만명 동시투약 가능), 김포공항세관에서 프랑스발 케타민 24kg(약 80만명 동시투약 가능)을 적발하기도 하였다.
- 셋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X-ray 동시구현 시스템 등 단속인프라를 확충하고, AI·빅데이터 활용 및 위협정보에 기반한 선별·검사 등으로 모든 반입경로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올해 상반기 중 외부정보 없이 관세청 자체 정보분석 및 위협정보 기반 선별·검사, X-ray 검색 강화 등을 통해 적발한 건수는 575건으로 전체 적발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 334건과 비교하면 72% 증가했다.

- 관세청은 국경단계 마약단속 체계를 고도화하여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 먼저, 마약사범 정보 등 마약밀수 위험정보 입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확장분석하여 여행자·화물 등 주요 반입경로별 검사를 강화한다.
 - 특히, 국제우편 경로의 적발이 감소했지만 마약밀수 경로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만큼 적발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모든 반입경로의 단속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 그리고, 위험화물·여행자 선별·검사에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활용을 고도화하고,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후방 산란방식 컨테이너 검색기 등 마약은닉 수법별로 적발에 최적화된 최신검색장비를 확충할 예정이다.
 - 아울러, 주요 마약출발국 관세당국과 국제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국내외 기관과 마약 위험정보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 특히, 선박을 이용한 대형 마약밀수를 선제적으로 추적·적발하기 위해 해외수사기관과 정보 공유 등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이명구 관세청장은 “최근 2년 연속 국내 마약사범이 2만 명을 상회하는 등 불법 마약류가 우리 사회 전반에 침투해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 “관세청은 불법 마약류 해외밀반입을 원천 차단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5년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통계 (25.6월말 기준)

2. 2025년 상반기 주요 적발사례

담당 부서	관세청	책임자	과 장	최문기 (042-481-7740)
	국제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우제국 (042-481-7702)

1. 연도별 마약류 단속현황

(단위: 건, g)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4.6월		2025.6월		동기대비 증감(%)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총 괄	1,054	1,272,474	771	624,451	704	769,363	862	787,199	362	297,963	617	2,680,851	70	800

2. 밀수경로별 단속현황

(단위: 건, g)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4.6월		2025.6월		동기대비 증감(%)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항공여행자	83	12,444	112	36,155	177	148,099	198	139,687	81	55,509	284	142,093	251	156
해상여행자	3	1,452	0	0	0	0	1	81	1	81	1	105	0	30
국제우편	780	193,306	461	361,287	328	327,307	420	189,930	191	99,755	151	72,798	△21	△27
특송화물	177	121,405	196	225,776	194	274,681	235	391,774	86	114,187	176	164,131	105	44
기타*	11	943,867	2	1,233	5	19,276	8	65,727	3	28,431	5	2,301,724	67	7,996
합계	1,054	1,272,474	771	624,451	704	769,363	862	787,199	362	297,963	617	2,680,851	70	800

* 수출입화물('21년 필로폰 402kg, 코카인 400kg, '25년 코카인 2,290kg(2건) 밀반입 외), 선원, 반입경로 미상 등

3. 품목별 단속현황

(단위: 건, g)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4.6월		2025.6월		동기대비 증감(%)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필로폰	127	576,856	120	261,887	155	437,662	153	492,533	75	154,176	68	152,255	△9	△1
코카인	20	448,479	8	152	17	11,343	7	67,600	4	28,633	7	2,302,488	75	7,941
대마	336	98,783	284	93,093	212	143,442	212	53,481	100	30,033	163	64,890	63	116
엠디엠에이	79	8,149	73	25,330	89	30,183	75	29,363	40	16,468	18	6,129	△55	△66
케타민	34	5,909	40	22,263	69	38,120	64	47,068	32	10,104	33	85,555	3	747
기타*	597	134,298	380	221,726	313	108,613	531	97,154	179	58,549	436	69,534	144	19
합계**	1,193	1,272,474	905	624,451	855	769,363	1,042	787,199	430	297,963	725	2,680,851	69	800

* (기타) 양귀비 종자, 옥시코돈, 모르핀, 펜타닐 등

** 1사건에 적발품목이 2개 이상인 사건이 있어 총괄 현황 적발건수와 상이

□ 적발사례(동영상)
[사례 1] 말레이시아발 목재의자 내부 필로폰 은닉

말레이시아발 특송화물
이용 목재의자 내부에
은닉한 필로폰 7,796g 적발

■ '25.1월 / 인천공항세관


[사례 2] 캄보디아발 신발, 과자 등에 필로폰 은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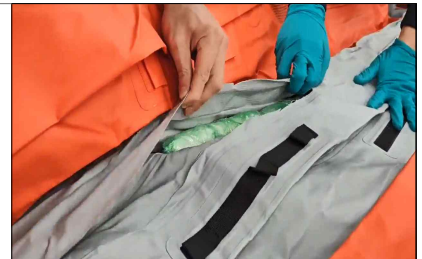
캄보디아발(중국 경유)
항공여행자가 신발
밑창, 과자 등
기탁수하물에 은닉한
필로폰 2,120g 적발

■ '25.2월 / 제주공항세관


[사례 3] 미국발 고무보트 내부에 필로폰 은닉

미국발 특송화물 이용
고무보트 내부공간에
은닉한 필로폰 848g 적발

■ '25.2월 / 인천공항세관


[사례 4] 남아공발 워터펌프 내부에 필로폰 은닉

남아공발 특송화물 이용
워터펌프 내부공간에 은닉한
필로폰 6,027g 적발

■ '25.3월 / 인천공항세관


[사례 5] 태국발 건조된 차(tea)에 야바 은닉

태국발 특송화물 이용 진공
포장 후 건조된 차(tea)에
은닉한 야바 30,183정 적발

■ '25.5월 / 인천공항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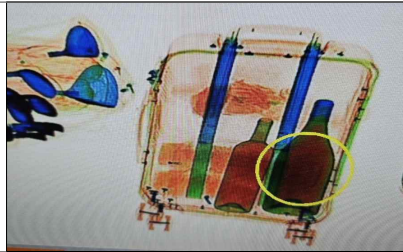


□ 적발사례(사진)

[사례 6] 항공여행자 와인병 액상에 녹인 필로폰 은닉

캄보디아발 항공여행자
가방 속 와인에 용해된
필로폰 2,129g 적발

■ '25.1월 / 인천공항세관



[사례 7] 항공여행자 기탁수하물에 필로폰 은닉

캄보디아발 항공여행자
캐리어 내부에
이중공간을 만들어
은닉한 필로폰 3,497g 적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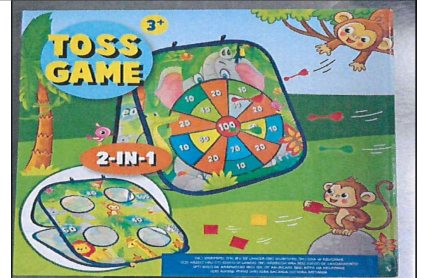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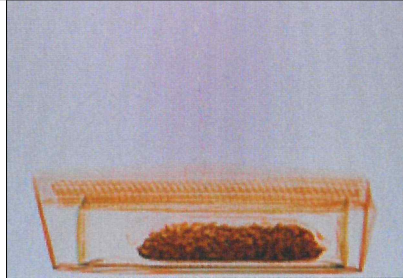
■ '25.3월 / 인천공항세관



[사례 8] 국제우편 이용 보드게임 내부 MDMA 은닉

네덜란드발 국제우편 이용
어린이용 보드게임 내부
이중공간에 은닉한
MDMA 615g 적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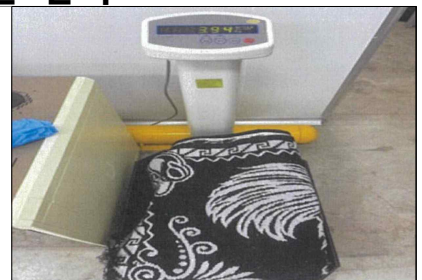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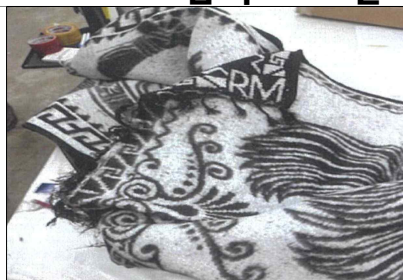
■ '25.4월 / 인천공항세관



[사례 9] 특송화물 이용 카페트에 흡착시켜 필로폰 은닉

멕시코발 특송화물 이용
액상 필로폰을 카페트에
흡착해 은닉한 물품
3.94kg(피포함)적발

■ '25.4월 / 인천공항세관



[사례 10] 국제우편 이용 인형 내부에 케타민 은닉

독일발 국제우편 이용
봉제인형 내부에 은닉한
케타민 1,869g 적발

■ '25.5월 / 인천공항세관

